

오지 않는 것을 달하여 찾고 지나가 버린 것을 슬퍼할 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로 인해 배어진 칼처럼 시들고 만다.

-근본경전-

현대불교

불교하는 불교실용사원 021745-8503 0111286-2680 서울 성북구 성북동 신음하는 불교실용사원 0411734-2680 대전 논산시 인산면 송정리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12월 26일 수요일(주간) 제 349호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더 깊은 산으로 간 영자

수소문 끝에 강원도 산골의 그 절을 찾아 간 시간은 해가 될 무렵 조용히 법당에서 삼배를 하고 나오니 비구니 스님 한 분이 건너편 요시체를 향해 걷고 있었다. "스님" "누시오?" "영자님이 행사 생활하는 곳이 이 절 맞습니까?" 순간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고 국방이라도 화를 낼 것 같았다.

"그 사람 지금 이 절에 없어요 보냈어요 사람들이 아는데 하고 찾아오니 이곳에 있을 수 있나요 그저 없는 듯이 살게 내 버려 두면 어때서"

"어디로 갔나요?" "도 고향이러고요? 찾지 마세요 다른 스님과 상의해서 더 깊은 산으로 보냈어요"



영자가 출가한 강원도 소재 사찰.

꽃 번을 물어도 법명조차 기르려 주지 않는 스님은 시종 '왜들이 커느냐'며 더 이상 도해영자의 법명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세상이 그 사람을 듣는 유일한 길'이라고 자르듯 말했다.

핸드폰이 켜지도 모르던 순박한 산골소녀가 핸드폰 광고가 출연하면서 '상품적 가치'로 세상풍파에 시달리던 팔지관 긴 세월, 그리고 아버지를 잃은 고통, 박절하고 삭막한 세상 인심에 쉽게 아물지 않을 정도로 큰 상처를 입은 산골소녀가 부처님께 귀의해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 왔다는 기자의 말에 대해 스님은 완강히 팔을 저었다.

그 절에 도해영자가 온 뒤로 스님과 본인 모두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언론의 집요한 취재 요청과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만지는 말 한마디조차 영자에게는 지나칠 수 없는 일들이었다는 것

도해 영자의 절 생활에 대해서 묻자 스님은 아예 산

문 밖을 향해 걸었다. 때문에 기자는 몇 마디 질문을 하며 스님을 따라 절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불가(佛家)와 인연이 있는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반야심경이고 금강경이고 경을 팔리 의뢰고 영불도 골잡 해요. 목청도 좋고요 있을 것은 있고 새로운 것에 열중하려는 생각이 있었겠지만... 아무튼 그 사람이 잘 정진 하도록 세상이 가만 놔두는 것만 바랄 뿐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제도 받고 제갈 길을 잘 갈 수 있을 겁니다"

산골소녀가 더 깊은 산사로 들어가고 없는 그 절이 산그늘 속으로 잠겨들었다.

임연태(뉴미디어부 부장)

장군 죽비

◇중앙승가대 2002년 신입생 미달 사태, 역경학과 1명 지원 폐과 위기. 공부가 살기는 승승에 차별이 없는 것인가. (2면)

◇해(田)가 해(田)는 건 바닷물에 몸 씻기 때문, 새 마음으로 새해(年) 맞은 이 마음 청정하기 때문(연말연시 기도처 안내). (9면)

◇익산시 미륵사 복원 계획, 문화재청의 철저한 고증 원칙에 제동, 옛밭(관공지화)보다 영불(고승)이 중요한 걸 왜 몰랐을까. (16면)

◇파리미타 부산사부 부산사 초 중 고 교사들에게 명상법 강의, 부처 닮은 선생님에 어찌 문제가 있으랴. (23면)

“인도불교 복원 돕자”

종단협·우리는선우·재가연대 공동캠페인 불교방송·불교TV·현대불교 '후원'

불교 발생지 인도에서 백여 개의 굵직한 불교가 다시 소생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 불교계-인도불교 복원을 돕기 위해 나섰다.

불교종단협의회, 우리는 선우, 순여불교재가연대는 최근 불교방송, 불교TV, 현대불교신문 등 3대 불교 언론사의 공동후원으로 인도 불교계와의 교류지원 등을 통한 인도불교 재건에 뜻을 모으고 범불교적인 인도 불교 돕기 추진위원회(가칭)를 결성, 공동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달 4일 델리에서 10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만여명이 불교로 개종하는 등 불가촉천민을 중심으로 인도불교 중흥의 단초

가 열리는 시점에서, 불가촉천민의 의로 복지 교육지원과 불교교육, 신행활동 지원 등 다양한 교류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인도 대사관의 자문과 현지조사를 통해 캠페인의 투명성 및 효율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재가연대 박광서 상임대표는 "인도 땅에 다시 불심이 켜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제방의 스님들과 재가자들의 관심과 지원약속이 있었다"며 "더욱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문의, 인도불교 돕기 임시사무국=02745-7799.

▶관련기사 22면 김재경 기자 jkim@buddhanews.com



자선냄비에 보시 20일 오후 중로 거리를 걷던 두 스님이 세말의 따뜻함을 나누는 마음으로 구세군 자선냄비에 온정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YMCA 자선냄비에 보시하는 스님들의 모습에 종교간의 화합과 나눔의 아름다움이 자절로 느껴진다. 사진=고영배기자

기자 방담 3면 2001년을 빛낸 불자들이 4면 2001년 불교계 10대 뉴스 5면

“전쟁·빈곤 해소 노력” 정대 스님 성탄애시지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은 20일 기독교인들에게 드리는 축하메시지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2000만 불교도와 함께 경축한다'며 '성탄절을 맞아 인간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마음을 함께 갖자'고 밝혔다.



스님은 또 "전쟁과 빈곤 해소는 사랑과 정의의 구현하는 종교계의 사회적 노력과 종교적 노력이 있을 때 실현 가능한 일임을 함께 공감한다"고 말했다.

10여 사찰 축하 헌수막

한편 조계종 총무원을 비롯 서을 관문사, 조계사, 봉은사, 화계사, 김계 금신사, 파주 보광사, 과천 연주암, 왜관 각원사 등 전국 10여개 사찰도 각각 사찰 앞 도로에 축하 헌수막을 내걸어 종교 화합을 염원했다. 김원우 기자

암매장 성행... 불법묘지 2천여기 도로개설·도시개발로 경관 해쳐

신음하는 '경주 남산'

지난 해 12월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로부터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 받은 경주 남산이 각종 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도시 발달에 따른 건축, 도로 개설 등으로 경관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불법 개인 묘지가 마구잡이로 들어서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경주 남산은 지난 71년 경주 국립공원 남산 지구와 85년 사적 311호로 지정돼 발굴 등 각종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20일 경주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등산로 주변과 계곡 곳곳에 개인 묘지 2천여기가 불법으로 들어서 있다고 한다. 절터나 불상 등 유적지 주변에 들어서 있는 묘지도 1천기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시 개발에 따른 경관 파괴도 심각하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 강태호 교수와 김구석 남산연구소장은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정부가 남산에 위한 도로의 고속도로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교통량 증가 등으로 인한 자연 경관 훼손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또한 '남산 곳곳에 초와 향, 음식물 등의 무분별한 투기와 각종 편의 시설 설치로 자연미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남산 내 사람들의 슬레이트와 콘크리트를 이용한 무분별한 건축 보수 공사가 이뤄지고 있어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의뢰한 남산 보존 정비 종합 계획(안)이 나오는 대로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남산 일원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jw@buddhanews.com

청거북 수입 금지

생태계 위해 동물 지정

'붉은 귀개복' '입명 청거북'이 생태계 위해 동식물로 지정돼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16일 붉은 귀개복을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 위해동물로 지정, 수입을 금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환경부와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가 공동으로 현장과 서울시 생태공원 등 13곳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거북은 천적이 없는 국내 하천에서 미꾸라지, 피라미는 물론 지라와 뱀, 황소개구리까지 잡아먹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청거북이 전국적으로 1천만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강유신 기자

국회 불교예산 144억 확정

역사기념관 건립 70억 템플스테이 사업 10억

새해 정부예산 가운데 불교관련예산 144억원이 확정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 111조9천792억원(일반회계)을 확정했다. 이중 불교관련예산(문화재 관련예산 제외)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립지원 70억원, 전통사찰 정비 및 보존사업 지원 51억원, 전통

사찰 숙박시설 활용템플스테이사업 10억원, 문화재조사비 5억원, 해외포교사 한국문화체험 4억, 사찰오폐수 설치비 4억 등 총 144억원이다.

특히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립 및 템플스테이 예산이 새로 편성됐다. 김기재 연동회장은 "21일 예결위 마지막 회의에서 불교관련 예산이 약간 삭감돼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당초 책정되지 않은 템플스테이 예산이 편성돼 기쁘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news.com

“직지심체요절 세계 最古 금속활자”

美 의회 도서관 인정

세계 최대 도서관인 미국 의회 도서관이 '의회 도서관의 세계 보물들 초기 유물들'이라는 특별전을 열면서 한국의 <직지심체요절> (사전을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로 소개하는 내용의 광고를 워싱턴 포스트지에 게재했다.

도서관측은 20일 금지마한 '직지' 사자와 함께 재대한 특별전 안내 광고



에서 "우리 모두 초등학교 때부터 구텐베르크가 1445년 세계를 바꿨다고 배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하고 "그보다 200년 앞서 동쪽으로 8천km 떨어진 곳에서 한국인들이 독자적인 활자를 개발한 것"이라고 직지를 설명했다. 권형진 기자

시대의 말씀

현대불교신문이 올해 전개로 했던 10대사업 가운데 대장경 봉안 캠페인 등 8개 사업은 당초 약속드린대로 성실하게 이행했으나 △우주불교사이트 시상 △나눔의 손잡기 운동만큼은 부득이한 사정에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깊이 사과드리며 독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전역 문화가 최고의 이지 프로그램

천지안 21은 역학세계의 원리를 1장의 CD에 완벽하게 담아 방대한 자료를 압축하여 이를 기초로 컴퓨터를 처음 접하시는 분도 이름과 생년월일의 입력만으로 초명리, 고명리사주, 주역사주, 진법사주, 이사, 방위, 풍수, 점성술, 사주, 해운, 점명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으며 상담사의 사주결과에 대한 부적이 자동으로 출력됩니다. 또한 상담자의 상담내용이 자동으로 데이터 저장되어 과거에 제공했던 정보를 상담중에도 볼 수 있어 상담자에게 믿음과 신뢰를 더해 드립니다.

천지안21 특징

사주기능(초명리, 고명리, 주역, 진법사주)
이제 만세력을 넘기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주원국, 대운(월, 일, 지지) 세운, 일운, 속상, 각종 상, 운상, 용신, 궤, 각종 해설 등을 보여주고 기타 여러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해명/작명기능
해명은 5초만에 작명은 남·녀 이름 모두 5분안에, 작명장까지 만들 수 있어 아주 편리합니다. (올 대법원 인용한지 수록!)

궁합/이사/택일기능
궁합을 250가지를 비교하고 7가지 궁합법으로 결과와 설명을 해주고, 일지도 알려주며 지도와 택일장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관상/수상기능
그림파일과 몽타주 작성도 하고 해설까지 보여드리니 아주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적기능
고객의 사주에 딱 맞는 중합부적을 자동으로 만들고 1,500여 종류의 부적과 처방법까지 알려드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출력도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관리기능
회원, 회계, 일정, 비품, 도서, 기초관리도 해드라구요. 재래와 상당한 내용을 기억하며 알려드리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역학 전문 소프트웨어

천지안 21

구입문의: (02)762-3890~1 (각종 카드 결제 가능!)

성진문화사 (천지안21 판매사업부)

본사:BBN21(주)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0-20 마르코폴로빌딩 9F 전화:02-3452-0206(대), 0181 팩스:02-3452-1347